

# OECD-FAO 세계농업전망 2025-2034: 농식품<sup>1)</sup> 동향과 전망

김 두 휘\*

## 1.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작성한 「OECD-FAO 농업전망 2025-2034(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5-2034)」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세계 농산물 및 수산물 시장에 대한 중기 전망을 제시한다. 전망은 거시경제 여건, 생산성 추세, 기상, 소비자 선호, 농업 및 무역정책에 관한 가정을 토대로 한 기준선(baseline) 시나리오에 기반한다.

향후 10년간 세계 농식품 수요는 증가하되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수요는 주로 중하소득국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소득 증가와 도시화는 동물성 식품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관련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증가와 식단 변화는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과 배출 저감 기술 확산이 병행될 경우 식량안보와 환경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 달성 가능성이 제시된다. 국제 농산물 시장과 다자 협력은 식량안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 국제 농산물 가격은 생산성 개선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하락 경로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환경, 사회, 지정학 및 경제적 요인에 따라 이러한 전망은 변동될 수 있다.

본 전망은 2024년 12월 기준의 데이터와 정책을 전제로 하며,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세계 농식품 시장의 중기 경로를 제시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dewey1157@krei.re.kr).

본고는 「OECD-FAO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2025-2034」보고서 중 제1장(Agricultural and food markets: Trends and prospects)을 번역·정리한 것임.

1) 본 보고서에서 '농식품'은 작물(crops), 축산(livestock), 수산 및 양식(fish and aquaculture)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농업 부문 분류 기준에 따름(OECD/FAO, 2025).

## 2. 주요 거시경제 변수 전망

### 2.1. 기준선(baseline) 가정과 정책 전제

기준선 시나리오는 OECD와 FAO가 보유한 품목, 정책, 국가별 전문성에 더해 협력 회원국 및 국제 원자재 관련 기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추세 연장이 아니라 실제 정책 환경과 제도적 조건을 포함한 분석적 전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전망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데이터와 정책을 토대로 하며, 향후 신규 정책은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은 2024년 12월 말까지 비준된 경우에 한해서만 반영된다.

정책 불변 가정은 기준선 전망의 핵심 전제이다. 농업, 바이오연료, 수산물 시장은 정책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이므로, 정책 개편 여부는 시장 구조와 가격, 생산, 교역 경로를 바꾸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전망은 정책 충격을 반영한 예측이 아니라, 현행 제도가 지속된다는 조건 아래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교역 및 가격 변화는 모두 현행 정책체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준선은 정책 변화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참조점이라는 성격도 갖는다. 향후 정책 개편이나 대안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기존 경로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의 확정된 미래라기보다 현재 주어진 제도와 여건 아래에서 세계 농식품 시장이 가장 개연성 있게 전개될 중기 경로이다.

### 2.2. 세계 인구 증가세 둔화 및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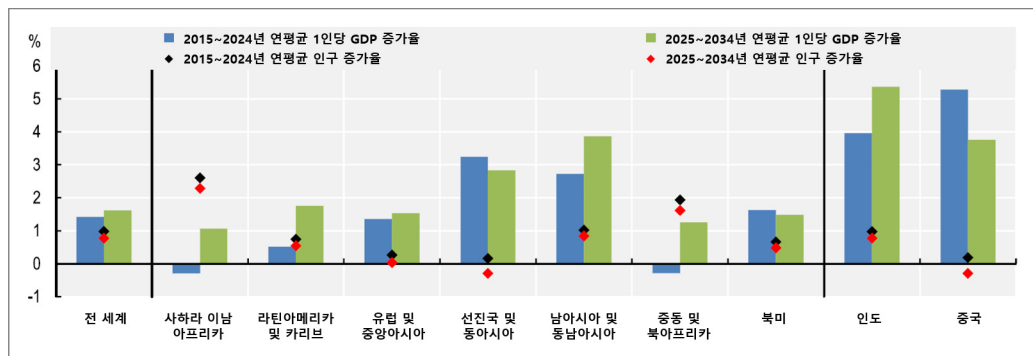
향후 10년간 세계 인구는 7억 2,900만 명 증가하여 2034년 8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0.8%로, 지난 10년의 1.0%보다 낮으며, 이에 따라 세계 식품 수요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 1인당 GDP 증가율 및 인구 증가율의 세부 수치는 부표 1, 2를 참고.

지역별 차이는 뚜렷하다. 인도는 2023년 이후 세계 최대 인구국 지위를 유지하며, 2034년 세계 인구의 17.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연 2.3%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며, 2034년 세계 인구의 1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연 1.6% 증가하여 두 번째로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지만, 2034년 세계 인구 비중은 6.3%에 머문다. 반면 중국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0.3% 감소하나, 2034년에도 세계 인구의 15.7%를 차지하는 두 번째 인구 대국으로 남는다. 중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와 북미는 연 0.5% 증가하는 반면, 유럽·중양아시아의 인구는 대체로 정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인당 소득(2014-16 미 달러 기준)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확대의 핵심 동력은 신흥·개도국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인도(연평균 5.4%)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개도국)이 소득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도 연 1.8% 성장하여 세계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중진국들의 성장이 세계 농산품 수요의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각각 1.1%, 1.3%로 세계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가운데 유럽·중양아시아는 소득 증가율이 소폭 개선되고, 북미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두 지역 모두 평균적으로 연 1.5% 수준의 증가가 전망된다.

〈그림 1〉 세계 및 주요 지역의 1인당 GDP 및 인구 증가율



자료: OECD/FAO(2025: 21).

### 2.3. 에너지 및 비료 가격의 완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화 확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화석연료 수요 증가세는 2030년 이전 최고점에 도달한 후 그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은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세계 기준 유가<sup>3)</sup>는 2022년 배럴당 101달러에서 2024년 80달러로 하락하였고, 2025년에는 73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망기간 전체에서는 실질 기준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급등했던 실질 비료 가격은 안정적인 유가 흐름과 함께 완화되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투입재 가격 전망(2025-2034)

구분	단위	2022-2024 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브렌트유	달러/배럴	87.8	72.9	74.3	75.7	77.1	78.5	80.1	81.7	83.3	84.9	86.6
비료	달러/톤	402.8	305.9	311.9	317.6	323.4	329.3	336	342.7	349.4	356.3	363.4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3.9.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 2.4. 주요 불확실성 요인

기준선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시장 전개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지정학적 전개는 국제무역 관계, 규제 협력, 글로벌 지속가능성 노력 전반의 단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 이후 발생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국제무역, 식량원조,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측면에서 기준선 전망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기후 측면에서는 기온 상승, 강수 패턴 변화, 생태계 서비스 교란, 극한기상 증가 등이 농업 단수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농가는 재배시기 조정, 작부체계 다변화, 종합적 병해충

3) 세계 기준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가격을 사용함.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적응할 것으로 가정되지만, 지역별로 상이한 적응능력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농산물 국제무역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며 공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교역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리스크도 주요 불확실성이다. 가금류 등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 피해로부터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나, 무역 제한이나 구조적 조정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성비료 시장 역시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OECD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질소, 인산, 칼륨 비료 공급이 단년 또는 2년 연속으로 20% 감소할 경우 식품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모든 합성비료에 단년도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FAO 식품가격지수는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최대 6% 상승할 수 있고, 2년 연속 충격이 가해질 경우 같은 기간 최대 13% 상승할 수 있다.

### 3. 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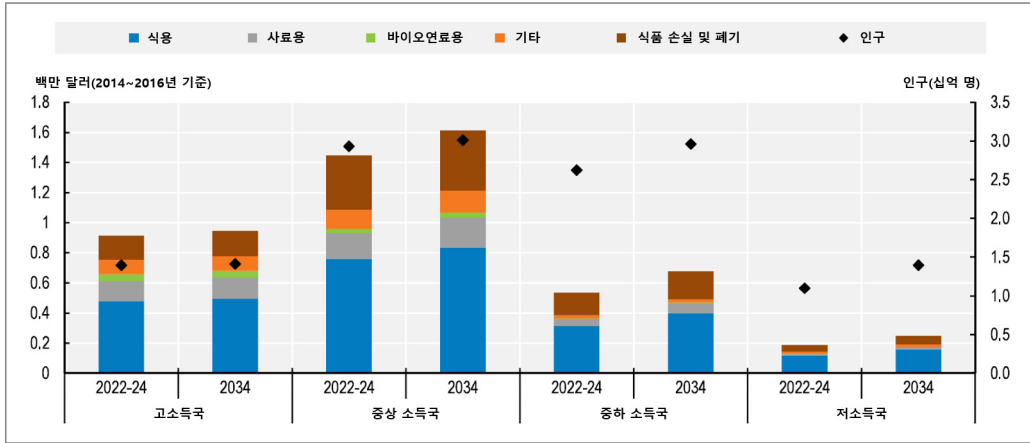
#### 3.1. 신흥국 중심의 소비 증가

향후 10년 동안 세계 농산물 및 수산물 소비 가치((2014-16 미 달러 기준)는 2034년까지 현 수준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소비의 대부분은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하소득국 성장의 중심축으로서, 2034년까지 세계 소비 증가분의 3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10년의 32%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소비 증가분의 32%를 차지했으나, 인구 감소,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식생활 패턴 안정화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에는 그 비중이 1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국 가운데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향후 10년간 전 세계 농산물 추가 소비량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의 주된 용도는 여전히 식용이다. 다만 중상소득국에서는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사료용 수요가 식용 수요보다 약 1.7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소득국에서는 사료용 수요 증가가 식용 수요 증가보다 약 1.1배 빠른 수준에 그친다.

〈그림 2〉 소득수준별 농산물 이용 구조



자료: OECD/FAO(2025: 24).

### 3.2. 소득 증가에 따른 식단 전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은 중하소득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중상소득국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상소득국은 전망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총 칼로리 섭취량이 정체되는 양상이 예상된다. 저소득국은 가처분소득 증가 폭이 제한적이어서 중소득국보다 식품 소비 증가도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소득국은 이미 포화 수준에 도달해 칼로리 섭취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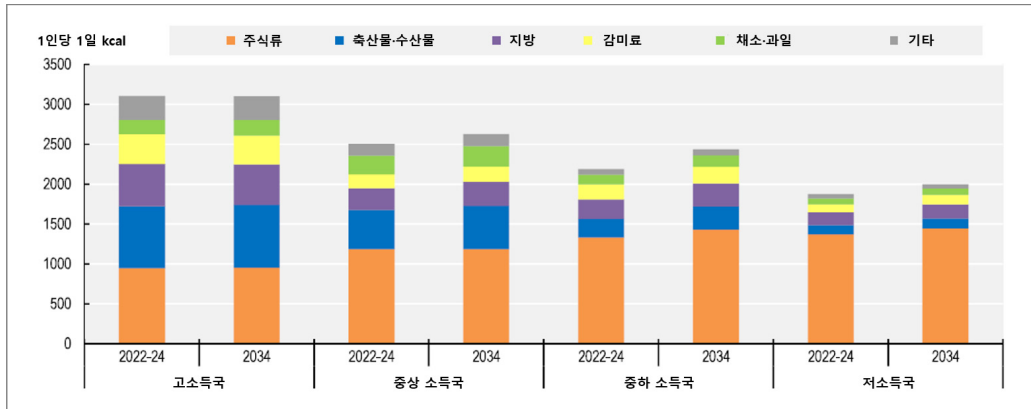
중기적으로는 중하소득국에서 동물성 식품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하소득국의 1인 1일당 동물성 식품 섭취량은 전망기간 동안 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이들 국가가 FAO의 건강한 식단 바스켓(Healthy Diet Basket, HDB)<sup>4</sup> 기준인 1인 1일당 300kcal를 상회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저소득국은 2034년에도 동물성 식품 섭취량이 1인 1일당 143kcal에 그쳐, 건강한 식단 바스켓 기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국에서는 식생활 패턴의 근본적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식물성 대체육 역시 전체 식품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며, 육류 소비 감소도 선호 변화보

4) Healthy Diet Basket은 FAO가 건강한 식단의 비용과 부담가능성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글로벌 기준으로, 각국의 식품기반 식생활지침(FBDGs)에 따른 평균 식품군 구성 비율과 권장량을 반영하여 구성되며, 1인 1일당 2,330kcal의 에너지 섭취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됨(OECD/FAO, 2025).

다 가격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국에서는 지방 및 감미료 소비가 감소하고, 가금육, 수산물, 과일, 채소 수요가 늘어나는 점진적 재편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 식품군별 1인당 1일 총 칼로리 섭취 구성



자료: OECD/FAO(2025: 25).

### 3.3. 영양 접근성과 식품 손실·폐기 문제

지역 평균 소비량은 국가 간, 국가 내, 가구 내 영양소 분배의 불균형을 가릴 수 있다. 평균 섭취 수준이 적정해 보이는 국가나 지역에서도 실제로는 일부 계층이 영양 결핍에 직면할 수 있다(FAO, 2023).

또한 분쟁, 극한기상, 낮은 생산성, 영양가 높은 식품의 공급 부족, 초가공식품의 과잉 공급 등은 건강한 식단의 비용을 높여 영양식의 부담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옥수수와 설탕처럼 열량은 제공하지만 영양가가 낮은 식품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경우, 식단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전망에서는 식품 손실·폐기 감축이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2030년까지 식품 손실·폐기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영양결핍 인구가 1억 5,300만 명 감소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정책 논의에서는 식품 손실·폐기 감축의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과 실행 가능성, 그리고 국가별 여건에 따른 정책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3.4. 사료용 수요와 바이오연료 수요

축산 분야 생산 확대에 따라 사료용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전망기간 동안 소·양·돼지·가금류 사육두수(소 환산 기준)는 소 환산 기준으로 7% 증가하는 반면, 육류·유제품·계란의 생산량(단백질 기준)은 16.6% 증가하여 가축생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하소득국에서는 사육두수가 10% 증가하는 데 비해 생산량은 43.6%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사료 소비(단백질 환산 기준)는 15% 증가할 것으로 제시된다.

바이오연료 수요 역시 주요 농산물의 사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산업적 수요이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와 혼합되어 사용되며, 에탄올은 주로 옥수수과 당류, 바이오디젤은 식물성유와 사용후 식용유를 원료로 한다. 세계 바이오연료 수요는 향후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 증가의 대부분은 중소득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탄올은 브라질과 인도가, 바이오디젤은 인도네시아가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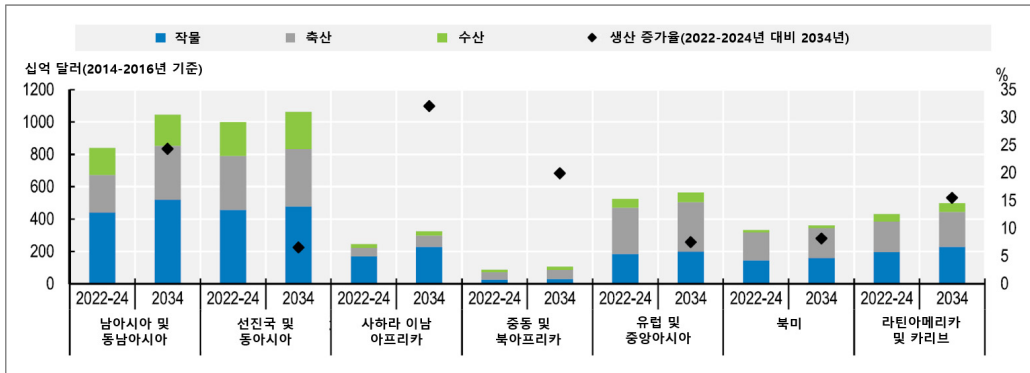
## 4. 생산 전망

### 4.1. 동물성 식품 수요 및 축산 분야 생산 확대

향후 10년간 세계 농업 생산의 총생산액(2014-16 미 달러 기준)은 2034년 3조 9,600억 달러에 이르며, 현 수준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축산물이 16% 증가하여 생산 확대를 주도하고, 작물은 14%, 수산물 및 기타 수생식품은 12% 증가할 것으로 제시된다.

지역별로는 개발·동아시아, 남·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의 중소득국이 세계 생산 증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전 세계 추가 생산 증가분의 83%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10년의 79%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추가 생산의 5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가 이 지역 증가분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제시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합산 기여도는 지난 10년 13%에서 향후 10년 19%로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북미와 유럽·중앙아시아는 자원 제약과 규제로 인해 성장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세계 농업 생산액 전망



주: 작물(crops), 축산(livestock), 수산(fish and other aquatic foods)은 OECD-FAO의 농업 부문 분류 기준을 따름.  
 자료: OECD/FAO(202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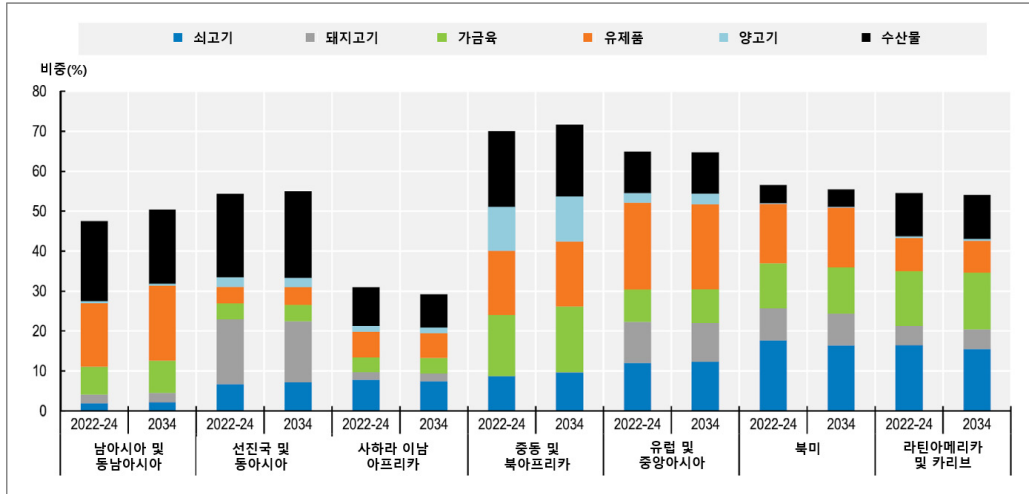
#### 4.2. 축산 및 양식 비중 확대와 지역별 차이

전체 농업 생산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중소득국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와 소득 증가에 따른 동물성 단백질 수요 확대와 해당 지역의 수출 확대 가능성 때문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선진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축산 비중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인도가 주도하는 남·동남아시아에서는 수산물, 가금류, 유제품 생산 증가를 바탕으로 축산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현재 농업 생산에서 작물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34년까지 축산 부문 생산이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금육, 쇠고기, 유제품이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제시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가금류와 유제품이 주요 성장 품목으로 나타난다.

반면 환경규제 강화와 최적 생산지 감소로 생산성 개선 폭이 제한됨에 따라, 수산물 및 양식의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더라도 전체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그림 5〉 전체 농업 생산 중 축산물 생산 비중



자료: OECD/FAO(2025: 33).

### 4.3. 온실가스 배출 확대와 배출구조

농업·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은 전 세계 인위적(anthropogenic) 온실가스 배출의 약 22%를 차지한다. 분석 대상은 농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이며, FAOSTAT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Tier 1 방법론<sup>5)</sup>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세계 농업 및 수산물 생산 확대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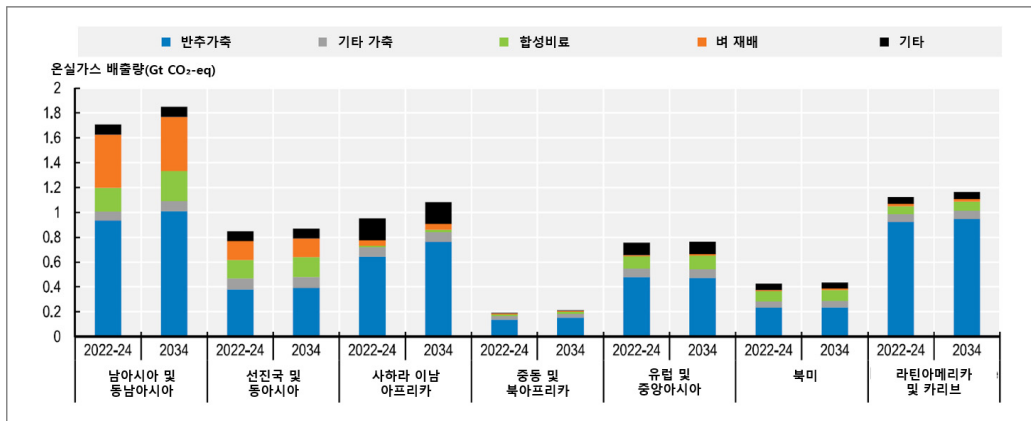
특히 중소득국을 중심으로 축군과 경지 확대가 일부 동반되면서, 배출 증가의 대부분은 반추가축<sup>6)</sup>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4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동남아시아의 농업 직접배출은 각각 14%, 8% 증가할 것으로 제시된다. 반면 산업화된 아시아 지역, 북미 및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반추가축 생산 정체로 배출량 증가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5) IPCC Tier 1 방법론은 IPCC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산정 체계 중 기본 수준의 방법으로, 국가별 세부 활동자료 대신 국제적으로 제시된 기본 배출계수(default emission factors)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임(IPCC, 2006).

6) 반추가축(ruminants)은 소, 양, 염소 등 반추위(rumen)를 통해 사료를 발효·소화하는 가축으로, 이 과정에서 메탄(CH<sub>4</sub>)이 배출되어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됨(IPCC, 2006).

향후 농업 직접배출 증가분 가운데 약 70%는 반추가축을 포함한 축산 부문에서, 28%는 합성비료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벼 재배 또한 주요 직접배출원이지만, 향후 생산 증가는 논 면적 확대보다 단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배출 증가 압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작물 및 축산 생산 활동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OECD/FAO(2025: 34).

#### 4.4. 생산성 향상과 탄소집약도<sup>7)</sup> 하락

향후 세계 작물 생산 증가의 83%는 단수 개선에 기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 및 수산물 생산 증가도 상당 부분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되며, 축군 확대 역시 일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제시된다. 중하소득국에서는 개량된 육종기술, 농장관리 개선, 투입재 사용 확대, 축산 분야 수의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이 농업 생산성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확대가 경지면적이거나 축군 확대보다 생산성 개선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10년간 모든 지역에서 농업 생산의 탄소집약도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직접배출량이 증가하더라도 단위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7)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는 단위 생산량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생산의 환경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IPCC, 2006).

그러나 중하소득국과 산업화 국가 간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과 벼 등 일부 주요 품목에서는 지역 간 단수 편차가 특히 크며, 향후 10년 동안 이러한 분포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생태적 조건도 생산성에 일부 영향을 미치나, 금융 접근성, 현대 농업기술, 숙련노동자, 투입재 활용 능력 격차가 생산성 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미래 식량수요를 충족하면서 경지와 축군 확대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술 격차 축소와 지속가능한 집약화(sustainable intensification)<sup>8)</sup>가 중요하다.

## 5. 무역 전망<sup>9)</sup>

### 5.1. 교역 비중 확대와 순수출·순수입 지역 분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농업협정 발효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농식품 교역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전망 품목의 생산량 대비 교역량 비중은 2000년 16%에서 2022년부터 2024년 평균 23%로 상승하였다. 이는 농업 생산보다 교역이 더 빠르게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2019년 이후에는 생산 대비 교역 비중이 22%에서 23% 범위에서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코로나19, 지정학적 갈등, 무역보호주의, 공급망 병목현상 등 다양한 충격 속에서 세계 농식품 교역은 기능을 유지하며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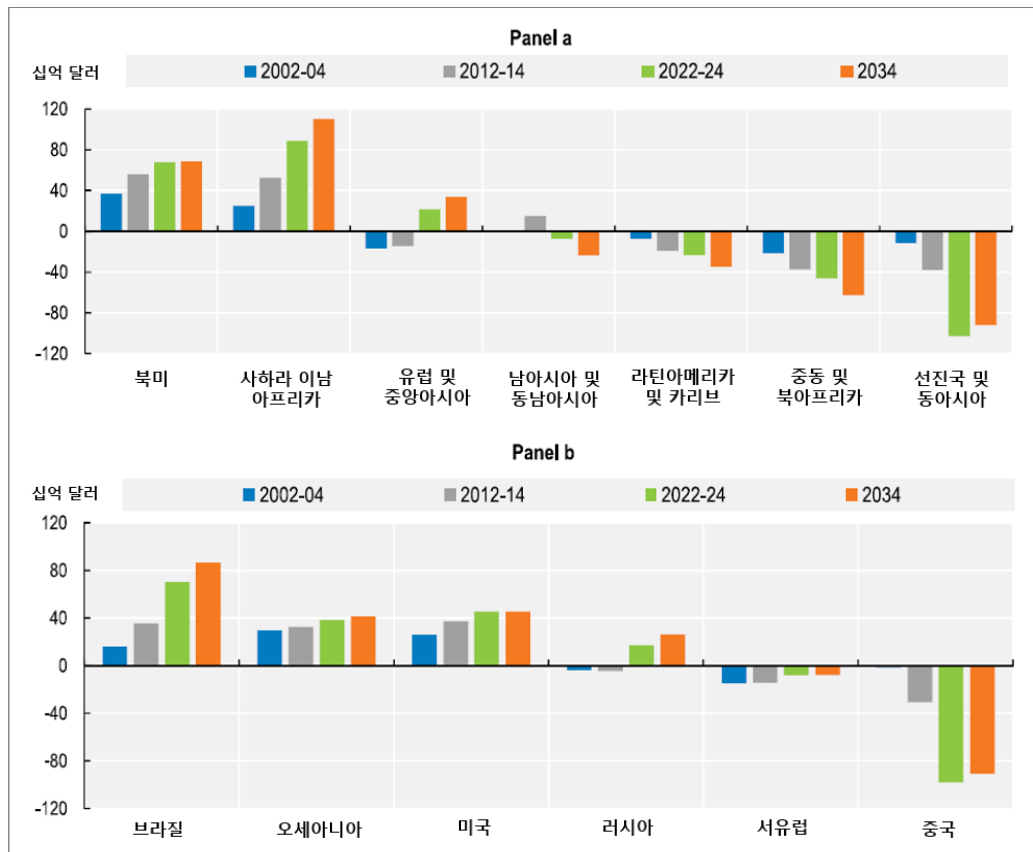
향후 10년간 농산물의 순수출 지역과 순수입 지역 간 분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라틴아메리카, 북미, 유럽·중양아시아는 순수출 지역으로서 수출 가능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그리고 태국이 순수출 국가에서 전망 기준기간(2022-24년)에 순수입 국가로 전환되었으며, 중기적으로도 이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최빈개도국 등이 수입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농식품 수요 확대로 농산물의

8) 지속가능한 집약화(sustainable intensification)는 토지, 물, 비료 등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훼손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산 방식임(OECD/FAO, 2025).

9) 품목별 수입량 및 수출량 전망은 부표 4, 5를 참고.

순수입이 2034년까지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와 자원 제약으로 인해 순수입이 34% 늘어날 것으로 제시된다.

〈그림 7〉 주요 농산물의 지역별 순농산물 교역 규모



자료: OECD/FAO(2025: 42).

## 5.2. 식량안보와 무역의 역할

식품 및 사료를 크게 필요로 하는 지역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이 반드시 생산성이 높은 지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잉여 지역의 생산물이 부족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역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세계 식량안보는 쉽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다자 협력과 규칙 기반 무역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농산물 시장이 원활히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소비 칼로리의 약 22%는 농산물 교역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제교역이 향후에도 세계 식량안보와 농촌 생계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보여준다.

### 5.3. 무역, 영양, 환경 지속가능성

국제 농산물 교역은 가격 안정과 식품 다양성 확대, 가치사슬 참여를 통한 소득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생산 여건이 좋은 지역의 생산물을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토지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무역협정에 환경 조항과 지속가능한 농업기준이 포함될 경우 지역 생태계 압력 완화와 탄소발자국<sup>10)</sup> 축소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제교역의 환경 효과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생산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장거리 운송이 확대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 확대가 항상 영양 개선으로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역 확대가 지방, 당, 염분 함량이 높은 식품의 접근성을 높여 비만 유발적 식생활 전환을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3년 세계 식품 및 농산물 교역액은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0년 이후 국경을 넘는 칼로리 양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무역이 이미 세계 식량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 6. 가격 전망

### 6.1. 실질 세계 가격의 장기 하락 추세<sup>11)</sup>

주요 국제 항만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활용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춘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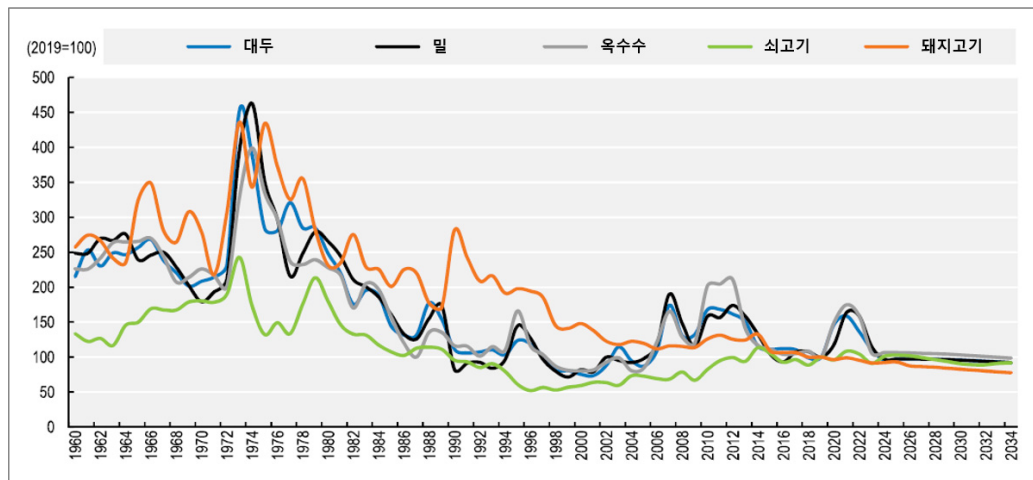
10) 탄소발자국은 특정 제품, 활동 또는 시스템의 전 생애주기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CO<sub>2</sub>-eq)으로 나타낸 지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산, 가공, 운송, 소비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함(IPCC, 2006).

11) 실질 세계 가격의 세부 수치는 부표 3을 참고.

과, 실질 세계 농산물 가격은 생산성 개선과 정상적인 기상 여건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부분 농산물의 한계 생산비용이 점차 낮아지는 구조를 반영한다.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 기계화, 정밀농업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관련 투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고 생산비가 높아져 국제 농산물 가격이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8〉 주요 농산물 실질 가격의 장기 추이(1960-2034)



자료: OECD/FAO(2025: 45).

## 6.2. 국내 가격 전이의 차이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가 지역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다. 운송비, 환율, 무역정책, 국내 시장의 세계시장 연계성 등에 따라 국제 가격이 국내 시장에 전달되는 여부와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더라도, 각국 소비자와 생산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은 다른 방향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송비가 높으면 세계 가격 변화의 영향이 국내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환율 변동은 세계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의 효과를 확대하거나 완충할 수 있다. 무역정책 역시 국내 가격 전이를 조절하는 요인이다.

## 7. 결론 및 시사점

향후 세계 농식품 시장은 다섯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식품 수요는 계속 증가하되, 그 중심은 점차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소득 증가와 도시화는 저·중소득국의 식단을 축산물 중심으로 전환시키며, 이는 사료 수요와 축산 및 양식 투자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계 농업 생산은 중소득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며, 그 상당 부분은 생산성 향상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국제무역은 잉여 지역과 부족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기제로서 여전히 세계 식량안보와 농촌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섯째, 생산성 향상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실질 세계 가격은 장기 하락 추세를 보일 수 있으나, 지정학, 에너지와 비료 가격, 기후변화, 가축질병, 정책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이 실제 가격경로를 크게 흔들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식량안보와 환경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chneider et al., 2023). 세계 농식품 생산 비중 증가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생산성 향상과 배출저감기술 확산이 결합될 경우, 기아 종식에 접근하면서도 직접배출을 줄이는 경로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된다. 따라서 향후 세계 농식품 시장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생산 확대나 가격 안정에만 있지 않다. 생산성 향상, 기술 확산, 기능하는 국제무역체계, 영양 접근성 개선, 식품 손실·폐기 감축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만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다.

〈부표 1〉 국가별 1인당 GDP 성장률 전망(2025-2034, 2010년 기준)

단위: %

구분	2022-2024 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호주	1.3	0.9	1.6	1.3	1.4	1.5	1.6	1.6	1.5	1.5	1.4
캐나다	1.0	1.0	1.2	1.0	1.0	0.9	1.4	1.3	1.3	1.3	1.4
칠레	1.0	1.9	2.0	2.0	1.9	2.0	1.6	1.6	1.6	1.6	1.5
콜롬비아	2.1	1.4	1.8	2.1	2.1	2.2	1.5	1.6	1.6	1.6	1.7
EU	1.4	1.8	1.9	1.8	1.8	1.7	1.6	1.6	1.6	1.6	1.6
일본	1.4	2.0	1.1	1.2	1.2	1.1	0.8	0.7	0.7	0.6	0.5
한국	2.2	2.2	2.3	2.3	2.3	2.3	2.1	2.0	1.9	1.8	1.8
멕시코	1.9	0.4	0.8	1.5	1.4	1.4	1.0	1.0	1.1	1.1	1.1
뉴질랜드	0.5	0.6	1.4	1.7	1.8	1.9	1.6	1.8	1.9	1.8	1.7
노르웨이	0.5	0.8	0.4	1.2	1.0	1.0	0.3	0.4	0.5	0.5	0.4
스위스	0.9	1.0	1.5	0.8	1.4	0.9	1.5	1.5	1.5	1.6	1.6
튀르키예	3.9	1.6	2.0	1.7	1.7	1.7	1.7	1.8	1.8	2.1	2.3
영국	1.3	1.1	0.7	0.9	0.9	0.9	1.2	1.2	1.2	1.2	1.2
미국	2.2	1.8	1.5	1.6	1.6	1.6	1.5	1.4	1.4	1.4	1.4
브라질	2.7	1.9	1.5	2.0	2.1	2.2	1.8	1.6	1.5	1.5	1.4
중국	4.5	4.9	4.7	3.8	3.6	3.6	3.8	3.8	3.7	3.7	3.6
이집트	2.4	2.3	3.2	3.2	2.6	2.3	2.2	2.1	2.1	2.0	2.0
인도	6.5	5.5	5.6	5.6	5.6	5.7	5.5	5.3	5.1	4.9	4.7
인도네시아	4.3	4.2	4.3	4.2	4.0	3.9	3.7	3.6	3.5	3.4	3.3
이란	3.0	2.1	1.9	1.6	1.3	1.4	1.9	1.9	1.9	2.0	2.0
말레이시아	4.5	3.2	3.2	2.8	2.9	2.9	2.8	2.7	2.6	2.5	2.4
파키스탄	1.1	1.6	2.4	2.4	2.8	2.8	2.6	2.4	2.3	2.1	2.0
페루	0.6	1.6	1.3	1.3	1.4	1.4	2.2	2.2	2.2	2.2	2.2
러시아	2.3	1.7	1.4	1.4	1.5	1.5	1.0	1.0	1.0	1.0	1.1
사우디아라비아	0.0	2.7	2.6	1.9	1.8	1.9	0.8	0.8	0.5	0.4	0.3
남아프리카공화국	-0.1	0.3	0.4	0.5	0.4	0.5	0.8	0.8	0.9	0.9	0.9
우크라이나	-2.0	-0.4	3.8	5.3	5.1	5.0	3.8	3.8	3.8	3.8	3.8
OECD	1.8	1.7	1.6	1.6	1.6	1.6	1.4	1.4	1.4	1.4	1.4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3.9.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2〉 국가별 인구 증감률 전망(2025-2034)

단위: %

구분	2022-2024 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호주	1.0	1.0	0.9	0.9	0.9	0.9	0.8	0.8	0.8	0.8	0.8
캐나다	1.1	1.0	0.8	0.8	0.7	0.7	0.7	0.7	0.6	0.6	0.6
칠레	0.5	0.5	0.4	0.4	0.4	0.3	0.3	0.3	0.3	0.2	0.2
콜롬비아	1.1	1.0	1.0	0.9	0.9	0.8	0.7	0.7	0.6	0.6	0.6
EU	0.2	-0.3	-0.2	-0.2	-0.2	-0.2	-0.2	-0.2	-0.2	-0.2	-0.2
일본	-0.5	-0.5	-0.5	-0.6	-0.6	-0.6	-0.6	-0.6	-0.6	-0.6	-0.6
한국	-0.1	-0.1	-0.1	-0.2	-0.2	-0.2	-0.2	-0.3	-0.3	-0.3	-0.4
멕시코	0.8	0.8	0.8	0.8	0.7	0.7	0.7	0.7	0.6	0.6	0.6
뉴질랜드	0.7	0.7	0.7	0.6	0.6	0.5	0.5	0.5	0.4	0.4	0.4
노르웨이	1.0	0.8	0.5	0.4	0.3	0.3	0.3	0.3	0.3	0.2	0.2
스위스	0.8	0.5	0.5	0.4	0.4	0.3	0.3	0.3	0.2	0.2	0.2
튀르키예	0.3	0.2	0.3	0.3	0.3	0.3	0.3	0.3	0.3	0.3	0.2
영국	0.7	0.6	0.5	0.5	0.5	0.5	0.4	0.4	0.4	0.4	0.4
미국	0.5	0.5	0.5	0.5	0.5	0.5	0.5	0.4	0.4	0.4	0.4
아르헨티나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브라질	0.4	0.4	0.4	0.3	0.3	0.3	0.3	0.2	0.2	0.2	0.2
중국	-0.2	-0.2	-0.2	-0.2	-0.3	-0.3	-0.3	-0.3	-0.3	-0.4	-0.4
이집트	1.6	1.6	1.5	1.5	1.4	1.4	1.4	1.4	1.4	1.4	1.4
인도	0.9	0.9	0.9	0.8	0.8	0.8	0.8	0.7	0.7	0.7	0.7
인도네시아	0.8	0.8	0.8	0.7	0.7	0.7	0.6	0.6	0.6	0.6	0.6
이란	1.2	0.9	0.8	0.7	0.6	0.6	0.5	0.5	0.5	0.5	0.4
말레이시아	1.2	1.2	1.1	1.1	1.1	1.1	1.0	1.0	1.0	1.0	0.9
파키스탄	1.6	1.6	1.6	1.6	1.7	1.7	1.7	1.7	1.7	1.7	1.7
페루	1.1	1.0	1.0	1.0	0.9	0.9	0.8	0.8	0.8	0.8	0.7
러시아	-0.2	-0.6	-0.4	-0.2	-0.3	-0.3	-0.3	-0.3	-0.3	-0.3	-0.3
사우디아라비아	2.7	1.8	1.7	1.7	1.6	1.6	1.4	1.4	1.4	1.3	1.3
남아프리카공화국	1.3	1.2	1.1	1.1	1.0	1.0	1.0	0.9	0.9	0.9	0.9
우크라이나	-5.0	3.0	1.4	-0.7	-0.7	-0.8	-0.8	-0.8	-0.8	-0.8	-0.8
OECD	0.4	0.2	0.2	0.2	0.2	0.2	0.2	0.2	0.2	0.1	0.1
세계	0.9	0.9	0.8	0.8	0.8	0.8	0.8	0.8	0.7	0.7	0.7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3.9.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3〉 품목별 실질 세계 가격 전망(2025-2034)

구분		단위	2022-2024 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곡물	밀	달러/톤	328.9	255.1	252.1	255.0	255.2	255.1	253.5	251.7	249.3	247.0	244.5
	옥수수	달러/톤	236.4	200.0	196.2	197.7	196.9	195.9	194.2	192.5	190.2	188.1	185.7
	기타 조립곡물	달러/톤	253.5	214.9	211.9	213.7	214.4	214.2	213.5	212.2	210.7	209.3	207.5
	쌀(정곡 기준)	달러/톤	487.5	439.7	436.9	434.4	431.6	428.6	424.3	419.7	414.7	409.6	404.4
	주정박	달러/톤	220.8	158.1	150.6	151.1	150.9	150.3	149.2	147.8	146.1	144.4	142.5
유지종자	대두	달러/톤	523.2	428.8	436.2	439.9	439.5	438.3	434.9	432.9	429.1	424.9	420.8
	기타 유지종자	달러/톤	538.6	530.3	526.5	526.5	524.1	525.5	522.1	518.6	514.4	510.5	506.4
	단백질박	달러/톤	430.6	329.4	326.6	329.1	331.0	330.4	328.2	326.3	323.5	321.1	317.9
	식물성 유지	달러/톤	1139.0	1173.7	1122.3	1116.2	1102.3	1104.2	1100.6	1095.4	1090.8	1083.3	1083.2
감미료	원당	달러/톤	478.4	376.2	384.6	382.5	381.5	379.7	376.6	372.7	368.9	365.2	361.0
	정제당	달러/톤	598.5	479.5	487.4	484.6	486.2	483.3	481.1	476.4	473.1	471.2	467.6
	당밀	달러/톤	234.9	172.5	185.1	177.3	170.8	168.2	168.3	163.7	163.3	163.4	163.3
육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달러/톤	6146.7	6311.9	6273.3	6165.1	5923.1	5784.6	5665.0	5588.1	5563.1	5618.7	5622.5
	돼지고기	달러/톤	2946.1	2885.1	2700.3	2728.8	2608.8	2638.5	2588.4	2549.1	2506.0	2468.4	2427.0
	가금육	달러/톤	1957.2	1806.0	1698.1	1658.4	1693.1	1638.0	1623.7	1610.4	1594.8	1579.3	1543.7
	양고기	달러/톤	7253.1	6878.0	7119.8	7344.5	7255.7	7004.3	6704.3	6579.9	6522.5	6630.2	6657.5
여류 및 수산물	교역량	달러/톤	3516.3	3290.4	3106.2	3108.8	3018.3	2998.1	2966.5	2926.6	2896.1	2867.7	2803.5
	양식	달러/톤	3086.2	3004.2	2850.4	2793.8	2790.5	2777.1	2761.5	2741.5	2725.1	2706.6	2685.9
	어획	달러/톤	2026.1	2013.1	1940.2	1914.5	1901.2	1889.1	1874.7	1864.6	1847.5	1831.4	1817.1
	박	달러/톤	1747.4	1444.4	1426.2	1600.5	1460.8	1490.3	1486.5	1761.1	1520.9	1536.5	1544.1
	유지	달러/톤	4124.8	2978.2	2862.1	2814.5	2608.2	2919.8	2937.7	3015.1	2854.2	3044.3	3071.9
유제품	버터	달러/톤	5951.5	6360.0	5993.7	5994.8	5998.3	5892.8	5854.2	5807.0	5787.4	5762.5	5738.4
	치즈	달러/톤	4915.2	4603.5	4598.4	4637.4	4646.7	4681.8	4601.5	4656.2	4655.6	4677.8	4600.2
	탈지분유	달러/톤	3179.1	2608.7	2700.0	2721.8	2737.5	2751.5	2759.0	2748.2	2739.3	2733.2	2725.3
	전지분유	달러/톤	3575.6	3704.4	3627.3	3655.9	3665.1	3695.6	3665.1	3647.1	3637.8	3631.2	3624.4
	유청분말	달러/톤	1074.3	951.4	944.6	947.0	945.9	946.6	943.5	942.1	939.9	938.1	935.5
	카제인	달러/톤	1044.4	860.8	852.0	853.1	852.9	851.6	849.4	847.6	845.3	842.8	840.0
바이오 연료	에탄올	달러/100l	64.2	47.7	47.1	46.5	46.1	45.7	45.4	45.0	44.6	44.2	43.8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달러/100l	154.7	119.0	118.5	118.2	118.1	117.9	117.5	117.2	116.8	116.5	116.1
면화		달러/톤	2066.5	1835.1	1836.7	1852.7	1890.0	1784.4	1756.4	1729.6	1701.3	1674.9	1653.5
근채류 및 괴경류		달러/톤	276.9	252.3	250.9	252.1	251.8	251.5	250.5	249.4	245.4	242.5	239.1
두류		달러/톤	317.5	256.9	259.7	260.6	257.9	257.3	255.4	256.7	255.8	255.4	254.4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3.9.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4〉 품목별 수입량 전망(2025-2034)

단위: 천 톤

구분		2022-2024 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밀	전 세계	300,399	198,316	200,780	204,026	207,390	210,629	213,763	216,731	219,788	222,922	226,132
	OECD	48,124	44,096	43,963	44,008	44,132	44,310	44,493	44,663	44,836	45,001	45,171
	개발도상국(DCs)	162,233	154,337	167,028	169,948	173,017	175,862	178,619	181,227	183,960	186,758	189,652
	최빈국(LDCs)	20,209	21,919	22,086	23,914	24,923	25,944	27,057	28,209	29,344	30,674	31,665
옥수수	전 세계	182,933	182,892	184,785	188,677	191,311	194,138	197,308	200,599	203,813	206,973	210,279
	OECD	83,840	83,442	84,503	85,696	86,695	87,462	88,271	89,077	89,963	90,786	91,762
	개발도상국(DCs)	139,452	141,561	143,452	146,103	148,643	151,360	154,253	157,208	160,123	162,950	166,006
	최빈국(LDCs)	4,348	3,583	3,309	3,598	3,689	3,898	4,117	4,300	4,605	4,866	5,152
기타 조립곡물	전 세계	43,162	43,589	43,905	44,654	45,274	45,897	46,547	47,212	47,897	48,621	49,391
	OECD	9,191	8,513	8,603	8,647	8,633	8,609	8,742	8,814	8,867	8,957	9,047
	개발도상국(DCs)	35,495	35,689	37,280	38,110	38,790	39,472	40,164	40,867	41,503	42,363	43,181
	최빈국(LDCs)	1,756	1,288	1,208	1,295	1,394	1,584	1,748	1,803	2,098	2,317	2,567
쌀	전 세계	53,173	58,133	57,319	57,113	57,036	59,466	60,649	61,788	62,332	64,678	65,288
	OECD	7,930	8,234	8,286	8,315	8,384	8,464	8,537	8,610	8,680	8,749	8,818
	개발도상국(DCs)	45,493	50,093	49,221	48,495	49,678	51,110	52,193	53,251	54,308	55,366	56,488
	최빈국(LDCs)	10,296	12,406	12,146	12,339	12,883	13,673	14,304	14,913	15,542	16,186	16,859
대두	전 세계	175,660	178,124	177,537	177,984	178,329	178,756	178,888	178,614	178,639	178,664	178,646
	OECD	31,305	31,195	31,131	31,241	31,734	31,979	31,537	31,668	31,733	31,835	32,070
	개발도상국(DCs)	154,680	157,294	156,925	157,478	157,868	158,306	158,644	159,821	161,582	190,158	207,158
	최빈국(LDCs)	2,413	2,694	2,954	3,046	3,121	3,188	3,250	3,291	3,332	3,369	3,401
기타 유지종자	전 세계	23,687	21,868	21,995	22,018	22,071	22,116	22,197	22,285	22,378	22,458	22,544
	OECD	13,945	13,063	13,049	13,019	12,997	12,912	12,990	12,946	12,934	12,916	12,922
	개발도상국(DCs)	10,900	9,920	10,055	10,158	10,245	10,327	10,434	10,562	10,672	10,786	10,901
	최빈국(LDCs)	436	453	480	495	507	520	533	547	560	572	583
단백질박	전 세계	99,236	103,269	104,650	106,079	107,400	108,711	110,134	111,770	113,159	114,596	116,116
	OECD	49,177	49,994	50,218	50,304	50,305	50,344	50,448	50,545	50,613	50,667	50,718
	개발도상국(DCs)	59,275	63,334	64,606	66,037	67,480	68,902	70,421	72,117	73,595	75,143	76,787
	최빈국(LDCs)	2,319	2,405	2,524	2,671	2,814	2,974	3,147	3,361	3,535	3,734	3,942
식물성 유지	전 세계	86,608	85,728	86,089	86,574	87,173	87,612	88,104	88,708	89,259	89,853	90,421
	OECD	25,266	24,718	24,228	23,947	23,725	23,511	23,277	23,121	22,928	22,763	22,589
	개발도상국(DCs)	63,003	63,639	64,513	65,287	66,108	66,750	67,467	68,226	68,965	69,719	70,458
	최빈국(LDCs)	7,206	7,573	7,895	8,197	8,491	8,757	9,025	9,294	9,561	9,825	10,088

(계속)

구분		2022-2024 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설탕	전 세계	63,394	61,664	61,553	62,619	63,696	64,889	66,108	67,354	68,494	69,571	70,824
	OECD	11,853	11,041	11,216	11,171	11,131	11,103	11,058	11,006	10,952	10,906	10,867
	개발도상국(DCs)	51,683	50,613	50,443	51,452	52,556	53,752	54,955	56,167	57,314	58,463	59,654
	최빈국(LDCs)	9,704	9,284	8,999	9,329	9,701	10,110	10,540	10,990	11,445	11,904	12,388
쇠고기	전 세계	11,985	13,041	12,782	12,721	12,829	13,034	13,133	13,255	13,375	13,464	13,552
	OECD	4,713	5,190	4,950	4,747	4,580	4,581	4,560	4,561	4,559	4,568	4,576
	개발도상국(DCs)	7,941	8,519	8,487	8,604	8,915	9,187	9,221	9,356	9,467	9,543	9,619
	최빈국(LDCs)	96	91	90	101	130	124	102	124	152	170	189
돼지고기	전 세계	10,322	11,073	11,041	9,991	9,972	9,999	10,028	10,104	10,076	10,117	10,151
	OECD	5,715	5,719	5,733	5,717	5,720	5,744	5,705	5,786	5,805	5,821	5,838
	개발도상국(DCs)	6,689	6,567	6,502	6,401	6,440	6,485	6,490	6,505	6,537	6,582	6,617
	최빈국(LDCs)	100	76	103	109	129	148	169	193	217	242	268
가금육	전 세계	14,766	15,037	15,589	15,806	15,932	16,087	16,269	16,448	16,522	16,655	17,030
	OECD	4,333	4,520	4,479	4,525	4,576	4,611	4,647	4,682	4,725	4,772	4,822
	개발도상국(DCs)	10,534	10,737	11,120	11,476	11,592	11,731	11,896	12,062	12,248	12,441	12,646
	최빈국(LDCs)	1,170	1,154	1,300	1,364	1,447	1,522	1,598	1,679	1,783	1,840	1,930
양고기	전 세계	1,217	1,368	1,360	1,299	1,301	1,317	1,343	1,346	1,342	1,340	1,333
	OECD	451	497	514	508	510	506	504	500	497	497	495
	개발도상국(DCs)	782	888	863	808	807	828	855	863	861	859	854
	최빈국(LDCs)	4	5	5	5	5	5	6	6	6	6	7
버터	전 세계	1,044	1,058	1,068	1,083	1,101	1,114	1,127	1,140	1,149	1,158	1,168
	OECD	329	347	344	348	353	354	355	357	357	357	357
	개발도상국(DCs)	610	608	619	630	641	651	661	671	679	688	696
	최빈국(LDCs)	12	12	14	16	18	20	23	26	28	30	31
치즈	전 세계	3,362	3,709	3,780	3,833	3,884	3,940	4,001	4,062	4,124	4,187	4,248
	OECD	1,692	1,702	1,717	1,730	1,742	1,755	1,769	1,764	1,800	1,816	1,829
	개발도상국(DCs)	1,650	1,596	2,024	2,069	2,110	2,150	2,204	2,252	2,300	2,340	2,366
	최빈국(LDCs)	28	36	50	60	70	84	98	113	128	143	159
전지분유	전 세계	2,632	2,553	2,577	2,602	2,626	2,648	2,670	2,693	2,718	2,742	2,767
	OECD	164	146	149	152	152	151	150	149	149	148	146
	개발도상국(DCs)	2,498	2,436	2,480	2,485	2,508	2,530	2,553	2,576	2,601	2,625	2,650
	최빈국(LDCs)	200	255	255	275	285	295	305	315	326	337	347
탈지분유	전 세계	2,525	2,577	2,634	2,696	2,747	2,797	2,851	2,903	2,955	3,008	3,061
	OECD	500	502	509	512	516	520	524	529	534	540	546
	개발도상국(DCs)	2,324	2,372	2,430	2,491	2,539	2,588	2,640	2,689	2,740	2,790	2,840
	최빈국(LDCs)	96	106	112	118	124	130	136	143	149	156	163

(계속)

구분		2022-2024 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여류	전 세계	44,905	45,002	45,126	44,982	45,284	45,591	45,878	45,960	46,066	46,398	46,551
	OECD	23,089	23,037	22,967	22,868	22,954	23,050	23,113	23,041	23,188	23,260	23,330
	개발도상국(DCs)	22,499	22,579	22,784	22,813	23,124	23,386	23,601	23,668	23,827	24,010	24,209
	최빈국(LDCs)	1,449	1,563	1,587	1,620	1,628	1,636	1,724	1,742	1,771	1,803	1,830
어분	전 세계	3,838	3,744	3,757	3,480	3,740	3,740	3,778	3,496	3,727	3,767	3,797
	OECD	1,220	1,157	1,137	1,027	1,105	1,070	1,064	968	1,033	1,009	1,000
	개발도상국(DCs)	2,851	2,800	2,841	2,675	2,874	2,908	2,961	2,792	2,960	3,021	3,056
	최빈국(LDCs)	86	96	105	80	103	104	119	91	114	115	120
어유	전 세계	905	987	1,015	991	1,039	1,043	1,045	1,008	1,051	1,069	1,074
	OECD	733	819	844	826	862	866	871	861	869	900	930
	개발도상국(DCs)	316	320	336	332	352	351	352	333	349	353	356
	최빈국(LDCs)	13	15	18	15	15	15	15	15	15	15	15
에탄올	전 세계	11,840	11,981	12,092	12,107	12,162	12,299	12,442	12,614	12,798	12,821	12,836
	OECD	9,073	9,302	9,486	9,547	9,603	9,750	9,901	10,081	10,269	10,296	10,316
	개발도상국(DCs)	3,961	4,091	4,023	3,966	3,961	3,962	3,946	3,946	3,948	3,954	3,962
	최빈국(LDCs)	131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8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전 세계	9,200	10,533	10,681	11,253	11,798	11,957	12,088	12,197	12,265	12,281	12,301
	OECD	8,777	9,805	10,247	10,964	11,534	11,688	11,823	11,915	11,978	11,987	12,002
	개발도상국(DCs)	424	248	254	299	264	269	275	281	287	293	300
	최빈국(LDCs)	0	0	0	0	0	0	0	0	0	0	0
면화	전 세계	9,376	10,788	10,771	10,920	11,165	11,367	11,548	11,732	11,918	12,100	12,286
	OECD	1,518	1,909	1,927	1,944	1,953	1,962	1,980	2,000	2,021	2,044	2,069
	개발도상국(DCs)	9,023	10,429	10,415	10,586	10,807	11,009	11,168	11,372	11,568	11,739	11,905
	최빈국(LDCs)	1,592	1,874	1,907	1,938	1,978	2,017	2,056	2,095	2,134	2,175	2,218
근채류 및 괴경류	전 세계	31,053	29,144	29,445	29,782	30,229	30,630	31,035	31,427	31,723	32,013	32,303
	OECD	3,529	3,847	3,889	3,864	3,902	3,899	3,868	3,882	3,887	3,899	3,912
	개발도상국(DCs)	27,600	25,276	25,025	25,956	26,441	26,867	27,296	27,710	28,008	28,293	28,576
	최빈국(LDCs)	530	492	462	458	454	456	458	459	460	470	475
두류	전 세계	20,019	20,138	20,347	20,689	20,974	21,206	21,458	21,639	21,804	21,955	22,096
	OECD	5,217	5,080	5,056	5,051	5,064	5,064	5,065	5,058	5,054	5,048	5,042
	개발도상국(DCs)	16,062	16,339	16,575	16,893	17,196	17,361	17,683	17,872	18,040	18,196	18,342
	최빈국(LDCs)	2,109	2,160	2,175	2,183	2,232	2,263	2,325	2,367	2,409	2,450	2,512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3.9.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5〉 품목별 수출량 전망(2025-2034)

단위: 천 톤

구분		2022-2024 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밀	OECD	113,078	106,454	106,850	108,876	110,668	112,174	113,635	115,028	116,330	117,772	119,285
	개발도상국(DCs)	22,338	23,506	23,906	24,125	24,346	24,622	24,851	24,942	25,144	25,377	25,643
	최빈국(LDCs)	105	90	87	83	80	78	75	73	70	68	66
옥수수	OECD	61,999	68,715	68,093	66,538	68,573	68,813	69,195	69,695	69,996	70,152	70,614
	개발도상국(DCs)	85,314	81,390	81,505	84,893	86,453	88,145	89,966	91,776	93,610	95,435	97,316
	최빈국(LDCs)	3,051	3,337	3,285	3,078	2,976	2,835	2,703	2,572	2,459	2,350	2,246
기타 조립곡물	OECD	30,847	31,588	31,690	32,312	32,742	33,206	33,680	34,157	34,620	35,118	35,643
	개발도상국(DCs)	5,084	5,113	5,073	5,057	5,081	5,099	5,140	5,188	5,225	5,272	5,324
	최빈국(LDCs)	356	408	427	387	343	294	286	247	216	191	171
쌀	OECD	3,808	4,333	4,379	4,493	4,467	4,510	4,554	4,599	4,643	4,688	4,732
	개발도상국(DCs)	49,432	53,699	52,773	52,503	53,264	54,733	55,844	55,929	58,009	59,092	60,218
	최빈국(LDCs)	5,147	4,522	4,885	5,123	5,264	5,230	5,266	5,318	5,420	5,566	5,762
대두	OECD	52,653	52,208	51,653	51,582	51,639	51,726	51,700	51,686	51,608	51,494	51,389
	개발도상국(DCs)	117,241	130,342	120,381	120,837	121,037	121,282	121,331	120,943	120,926	120,946	120,934
	최빈국(LDCs)	792	699	654	637	622	608	595	585	578	570	567
기타 유지종자	OECD	14,776	12,385	12,627	12,354	12,332	12,289	12,287	12,303	12,332	12,339	12,533
	개발도상국(DCs)	3,217	3,257	3,397	3,315	3,304	3,303	3,301	3,293	3,285	3,279	3,274
	최빈국(LDCs)	430	415	403	391	379	365	352	336	320	305	290
단백질박	OECD	24,260	25,770	26,328	26,708	27,126	27,462	27,875	28,312	28,768	29,299	29,863
	개발도상국(DCs)	61,720	67,448	68,164	69,076	69,886	70,723	71,614	72,715	73,525	74,306	75,134
	최빈국(LDCs)	488	500	502	489	481	467	446	418	400	380	358
식물성 유지	OECD	8,828	8,971	9,117	9,179	9,309	9,316	9,329	9,402	9,483	9,600	9,638
	개발도상국(DCs)	64,089	64,857	64,904	65,129	65,403	65,638	65,904	66,227	66,478	66,736	67,040
	최빈국(LDCs)	459	447	430	413	397	382	368	354	341	328	316
설탕	OECD	6,328	6,438	6,203	6,302	6,358	6,397	6,422	6,449	6,524	6,555	6,676
	개발도상국(DCs)	59,973	50,722	58,647	57,783	58,099	60,097	61,292	62,511	63,577	64,592	65,767
	최빈국(LDCs)	2,266	1,152	615	583	582	564	540	517	507	499	480
쇠고기	OECD	5,519	5,383	5,293	5,142	5,273	5,500	5,578	5,671	5,761	5,802	5,818
	개발도상국(DCs)	7,174	7,609	7,545	7,671	7,601	7,656	7,711	7,762	7,808	7,852	7,919
	최빈국(LDCs)	7	7	7	7	7	6	6	6	5	5	5
돼지고기	OECD	8,555	8,399	8,187	8,221	8,263	8,301	8,333	8,364	8,398	8,437	8,474
	개발도상국(DCs)	1,923	1,853	2,022	1,861	1,872	1,867	1,803	1,863	1,869	1,877	1,882
	최빈국(LDCs)	2	2	2	2	2	2	2	1	1	1	1
가금육	OECD	6,657	6,429	6,636	6,752	6,799	6,867	6,948	7,014	7,093	7,174	7,261
	개발도상국(DCs)	8,799	8,231	8,545	8,668	8,774	8,899	9,033	9,169	9,316	9,469	9,629
	최빈국(LDCs)	32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계속)

구분		2022-2024 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양고기	OECD	1,256	1,213	1,194	1,123	1,137	1,182	1,240	1,264	1,271	1,270	1,267
	개발도상국(DCs)	107	143	145	152	148	137	123	115	112	112	111
	최빈국(LDCs)	9	9	9	9	8	7	6	4	3	3	3
버터	OECD	809	822	841	862	881	893	908	922	932	942	952
	개발도상국(DCs)	136	142	137	131	130	132	133	135	136	138	142
	최빈국(LDCs)	1	3	3	3	3	3	3	3	3	3	3
치즈	OECD	2,657	2,754	2,852	2,900	2,947	2,991	3,037	3,081	3,139	3,164	3,206
	개발도상국(DCs)	604	598	569	552	545	543	543	546	549	553	558
	최빈국(LDCs)	1	1	1	1	1	1	1	1	1	1	1
전지분유	OECD	1,777	1,807	1,822	1,840	1,858	1,874	1,890	1,908	1,927	1,946	1,965
	개발도상국(DCs)	706	695	703	708	713	717	722	726	730	734	738
	최빈국(LDCs)	8	7	7	7	7	7	7	7	7	7	7
탈지분유	OECD	2,207	2,179	2,232	2,288	2,333	2,379	2,427	2,475	2,522	2,570	2,618
	개발도상국(DCs)	208	264	268	271	276	279	281	284	288	290	294
	최빈국(LDCs)	8	7	7	7	7	7	7	7	7	7	7
어류	OECD	12,739	12,606	12,750	12,836	12,806	13,046	13,172	13,177	13,006	13,310	13,359
	개발도상국(DCs)	29,184	33,052	33,001	32,991	16,000	30,400	30,677	30,785	30,903	31,264	31,456
	최빈국(LDCs)	1,938	1,760	1,709	1,688	1,648	1,614	1,590	1,579	1,556	1,532	1,514
어분	OECD	942	1,022	1,022	1,042	947	999	1,004	1,073	914	1,019	1,026
	개발도상국(DCs)	2,629	2,841	2,855	2,545	2,833	2,834	2,860	2,523	2,800	2,836	2,854
	최빈국(LDCs)	172	180	166	170	179	179	191	178	165	183	186
어유	OECD	475	459	477	495	477	473	471	498	469	480	481
	개발도상국(DCs)	593	632	646	611	633	666	670	627	678	690	696
	최빈국(LDCs)	23	21	22	22	22	22	23	23	23	23	24
에탄올	OECD	6,507	6,934	6,928	6,848	6,792	6,820	6,992	7,011	7,178	7,291	7,377
	개발도상국(DCs)	3,815	3,706	3,823	3,918	4,030	4,139	4,199	4,263	4,279	4,189	4,119
	최빈국(LDCs)	19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바이오 디젤	OECD	3,864	4,729	4,936	5,142	5,344	5,412	5,483	5,500	5,518	5,521	5,525
	개발도상국(DCs)	5,048	5,071	5,490	5,588	6,200	6,292	6,303	6,444	6,496	6,509	6,525
	최빈국(LDCs)	0	0	0	0	0	0	0	0	0	0	0
면화	OECD	4,719	4,922	5,080	5,085	5,206	5,273	5,334	5,377	5,422	5,466	5,508
	개발도상국(DCs)	4,816	6,007	5,822	5,970	6,101	6,245	6,375	6,524	6,674	6,819	6,968
	최빈국(LDCs)	1,118	1,240	1,254	1,270	1,282	1,299	1,316	1,332	1,347	1,362	1,377
근채류 및 괴경류	OECD	1,985	2,006	2,046	2,058	2,110	2,147	2,187	2,228	2,253	2,276	2,300
	개발도상국(DCs)	18,052	19,607	20,029	20,346	20,736	21,102	21,457	21,802	22,073	22,338	22,602
	최빈국(LDCs)	622	601	699	935	977	1,005	1,036	1,057	1,078	1,096	1,113
두류	OECD	10,740	11,003	11,184	11,409	11,681	11,826	11,984	12,044	12,061	12,091	12,066
	개발도상국(DCs)	8,773	9,036	9,023	9,057	9,060	9,125	9,177	9,233	9,337	9,430	9,528
	최빈국(LDCs)	3,313	3,402	3,436	3,514	3,540	3,575	3,625	3,661	3,742	3,809	3,876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3.9.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 ■ 참고문헌

FAO(2023),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OECD/FAO(2025),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5-2034, OECD Publishing.

Schneider, K. R., Fanzo, J., Haddad, L., Herrero, M., Moncayo, J. R., Herforth, A., Remans, R., Guarin, A., Resnick, D., Covic, N., Béné, C., Cattaneo, A., Aburto, N., Ambikapathi, R., Aytekin, D., Barquera, S., Battersby, J., Beal, T., Molina, P. B., Cafiero, C., ... Wiebe, K. (2023), "The state of food systems worldwide in the countdown to 2030, Nature food, 4(12), 1090-1110.

## ■ 참고사이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Hand-in-Hand Initiative"(<https://www.fao.org/hand-in-hand/en>), 검색일: 2026.03.09.

IPCC,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https://www.ipcc-nggip.iges.or.jp/public/2006gl>), 검색일: 2026.3.9.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3.9.

